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0. 12.(월) 11:00 (지면) 2026. 10. 13.(화) 조간 배포 2026. 10. 12.(월) 06:00

##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해양지구공학활동 등 해양환경 현안 논의 및 런던의정서 관련 우리나라 협력 성과 공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9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IMO)가 위치한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8차 런던협약 및 제21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및 2009년 런던의정서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지구공학활동(Marine Geo-Engineering, MGE)\*의 평가 체계와 규제 방안,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협정\*\*과 런던협약·의정서 간 협력·조정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 기후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활동

\*\* 국가관할권 밖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정(26.1.17. 발효)

해양수산부는 해양지구공학활동과 관련해 해양 시비(施肥), 해양 알갈리도 향상 등에 대한 평가 체계와 관련 결의안 등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였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 논의에서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관리와 지속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1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운영 중인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의 성과를 소개하고, ‘SMART-C\* 런던협약·의정서 프로젝트’\*\*를 통한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 노력도 홍보하였다.

\* S - Sustained Partnerships(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M -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해양 환경 연구),  
A - and,  
R - Research & Education(연구 및 교육),  
T - Technology transfer / Training(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C - Collaborative / Capacity building(협업 및 역량 강화)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영대사관 겸 IMO 대표부 송종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해양지구공학활동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라며,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을 살린 국제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해양환경정책관   | 책임자 | 팀장  | 최재용 (051-773-6267) |
|       |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담당자 | 사무관 | 황종훈 (051-773-6273) |